

# 韓日古代說話에 나타난 處女性

## 야노 다카요시(矢野尊義)

### < 目次 >

1. 序論 4. 處女와 淸淨
2. 結婚拒否와 處女喪失 5. 結論
3. 約婚과 禁慾

### 1. 序論

정절(貞節)은 한국의 전통이며 한민족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도덕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이념이었고 한민족을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절을 상징하는 청결(淸潔)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이전, 특히 고대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정절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있는 <도미(都彌)부인> 이야기는 전형적인 열녀(烈女)설화라고 할 수 있으며 고대에 있어서 열녀설화를 대표할 수 있으나, 처녀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찾기 어렵다. 처녀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고려사(高麗史)』에 있는 <목주(木州)>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있는 <유화(柳花)>, <선화(善化)공주>, <김유신의 누이>, <호랑이 처녀> 이야기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산상왕(山上王)과 처녀>, <온달(溫達)과 공주>, <효녀 지은(知恩)>, <설씨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목주>와 <효녀 지은>는 안타까운 효녀에 대한 이야기이며 <온달과 공주>는 훌륭한 부인이 능력 없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성공시킨 이야기로서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와 남편에 대한 양처(良妻)가 주제가 되어 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처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처녀를 잃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처녀가 순결을 지키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있는 <설씨녀> 이야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있는 <광덕(廣德)과 엄장(嚴莊)> 이야기를 빼고는 거의 없는 실태이다.

한편, 일본고대설화에는 의외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처녀의 순결을 강조하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처녀설화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처녀의 순결(純潔)과 결백(潔白)함을 나타낸 이야기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고대설화에 처녀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드물며 일본 고대설화에 오히려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대인에 있어서 처녀란 무엇을 의미하며 처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조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한국에서는 춘향전(春香傳)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미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고대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순결성 연구는 많지 않았다. 고대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순결성 연구는 아직 미개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처녀의 순결성을 다루는 한·일 간의 고대설화의 비교연구는 예가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설화에서 처녀의 순결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대 한국과 일본의 ‘처녀성’을 밝혀 그 정신사(精神史)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結婚拒否와 處女喪失

### ① 處女喪失 모티프

다음은 『三國遺事』 <고구려(高句麗)>조에 있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본시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있어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 하고, 나를 웅신산(熊神山) 아래 압록강(鴨綠江) 가의 집속으로 꺾어 사통(私通)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중략) 부모가 나의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보낸 것이라

하였다. (『三國遺事』)

여기서 유화가 아우들과 놀고 있을 때 해모수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강가의 집 속으로 꺾어 사통했다는 것과 그녀의 순결을 빼앗은 그 남자는 어디로 가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화의 부모는 그녀를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모수가 유화를 꺾어냈을 때 그녀는 왜 따라가는지, 또 강가의 집 속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녀이던 유화가 해모수에 의해 처녀를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三國遺事』 <무왕(武王)>조에 있는 선화(善化)공주의 이야기이다.

(서동이) 동요(童謠)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기(몰래) 얼어[嫁] 두고 서동방(薯童房)(님)을 밤에 몰(몰래) 안고 가다”라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 대권에 까지 알려지니

백관이 임금에게 극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다. (중략)  
귀양처로 갈 때

서동(薯童)이 도중에서 나와 맞이하며 시위(侍衛)하여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공연히 미덥고 기뻐서 따라가며 몰래 간통하였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의 맞은 것을 알았다. (『三國遺事』)

이 이야기에서도 위의 이야기와 같이 공주의 사통이 문제가 되어 있다. 여기서는 서동이라는 총각이 이미 노래를 만들어서 서울에 소문이 퍼지도록 책략을 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총각의 의도대로 공주는 그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 모르나 공연히 미덥고 기뻐서 따라가며 몰래 간통하였다.’는 문구이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의 맞은 것을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공주는 이름도 모르는 총각에게 따라갔고 사통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요는 원래 농경의례를 할 때 사용된 집단가요이며 남녀가 짝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것이 후대에 동요가 되어 최후에는 무왕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한 설화로서 운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성이나 신빙성 여부는 묻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승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일부 엿볼 수 있으며 그 예의 하나가 위의 노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공주’는 결혼을 앞둔 처녀를 의미하며 <서동요>라는 노래는 처녀의 처녀상실을 놀리면서 처녀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는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처녀상실을 하기도 했던 당시 민속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상을 잘 모르는 순진한 처녀가 그저 남자를 믿고 따라가 순결을 잃은 모습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三國遺事』 <김유신(金庾信)> 조에 있는 김유신의 누이동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유신은)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서 옷끈을 떨어뜨리고, 청하기를 “내 집에 들어가서 달자.” 하였다. 공이 그렇게 하였다. (중략) 유신이 아지(阿之)에게 명하였다. 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상관하였다. (중략) 유신이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기를 “네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아이를 배었으니 이 무슨 까닭이냐” 하고 궁중에 말을 퍼뜨리며, 누이를 태워 죽인다고 하였다.

(『三國遺事』)

이 이야기에서도 부모의 허락 없이 남녀가 정을 통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 여기서 아지(阿之)는 오빠 유신의 권유에 따라 공과 만났고 공 또한 친구 유신의 충을 헤아리고 아지와 만나 상관했던 것이다. 사실상 유신이 공과 누이동생을 매쳐진 것이지만, 유신은 둘을 억지로 결혼시키기 위해 아지를 고의로 책하고 그녀를 임신시킨 공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결혼을 빨리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이 아지는 실은 정략(政略)결혼의 희생자이며 오빠 유신의 출세를 위해 순결을 상실한 결과가 되었다하겠다.

이렇게 유화, 선화공주, 김유신의 누이 등 모두 접근하는 남성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성에 따라가고 있다. 이들 처녀는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남성에 응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모의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질책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들 이야기를 통해 당시 한국의 결혼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녀들은 왜 이러한 금기를 넘어서 남성에 따라가는가? 김유신의 누이는 오빠를 위해 공과 사통했고, 선화공주는 동요를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된 허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으나, 유화의 경우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세 이야기가 모두 금기를 깨고 남자에 따라간다는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三國史記』에 있는 산상왕(山上王)과 한 처녀의 이야기이다.

十二年(二百八) 十一월에 교시(郊豕)가 달아나므로, 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뒤를 쫓아 주통촌(酒桶村)에 이르렀으나, 이리저리 달아나서 잘 잡을 수 없었는데, 나이 二十세쯤 되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가 웃으면서 이를 잡아 주므로, (중략) 왕에게 알리니 왕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여자를 보고자 하여, 밤에 그 여자의 집으로 미행(微行)하여 시인(侍人)을 시켜 온 뜻을 말하였다. 그 집에서는 왕이 온 것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왕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불러 상관하고자 하니 여자는 말하기를 “대왕의 명령이므로 감히 피하지 못하겠사오나, 만약 아이가 있게 되면 버리지 마옵소서”하자, 왕은 이를 승낙하였다. (중략) 군사들은 이를 쫓아가서 죽이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말하기를 “(중략) 지금은 나의 배에는 아이가 있는데, 이는 실로 왕의 유체(遺體)이다. 죽이는 것은 좋으나 왕자마저 죽일까 보냐”하니, (중략) 왕후는 노하여 꼭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다시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묻기를 “네가 지금 아이 낳은 것은 누구의 아이냐?”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첩은 평소 형제와도 동석하지 아니하옵는데, 황차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리까? 지금 배에 있는 아이는 실로 대왕의 유체입니다”하니, (중략) 그 아들의 이름을 교체(郊疣)라 하고, 그 어미를 세위 소후(小后)로 삼았다.

(『三國史記』 卷第 16 高句麗本紀 第 4)

여기서 겨우 스무 남짓 된 이 처녀는 왕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왕후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녀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뱃속에 있던 아이 때문이었다. 이 처녀의 집은 왕의 갑작스런 방문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왕이 방으로 들어가서 처녀와 상관하려고 할 때도 처녀는 “대왕의 명령이므로 감히 피하지 못하겠사오나...”라고 복종(服從)하면서도 “만약 아이가 있게 되면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서민층 처녀의 애처로운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첩은 평소 형제와도

동석하지 아니하옵는데, 황차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리까?”라는 처녀의 호소 또는 고백(告白)이겠다. 이 고구려의 처녀는 왕은 거부할 수 없었으나 평소에는 남자를 피하고 몸을 지키고 살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 남성에 대해서 수동적 입장에서 일어난 처녀상실 이야기를 보고 왔으나 이는 모두 한국의 이야기이었다. 이들 이야기는 예외 없이 남성들이 처녀를 끌고 가고 탈선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책은 다 처녀가 받고 있다. 처녀들이 이에 의해 버림을 받거나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지만, 남성에 대한 비난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처녀상실의 모두 책임은 순결을 빼앗은 남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빼앗긴 어린 처녀에 있다는 사회인식이다. 처녀의 처녀상실이 처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는 남성의 범행(犯行)에 대해서는 다 은폐(隱蔽)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일본 『야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 제 150 화에 있는 한 처녀의 이야기이다.

옛날, 나라(奈良)에 있는 천황을 머시는 어떤 우네메(采女)가 있었다. 이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워서 많은 남자들이 구애했고 궁중의 지위 높은 관리마저 구애했지만, 그녀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 처녀가 아무도 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천황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천황이 이 처녀를 불렀다. 그러나 (중

략) 천황은 단 한번만 이 처녀를 부른 채 그후에는 그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평소와 같이 그녀를 대했다. 처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서 드디어 어느 밤에 남몰래 궁중을 나와서 사루사와(猿澤)라는 못에 몸을 던졌다. (『大和物語』)

이 이야기에서 우네메 입장에 있는 처녀에게 많은 남자가 구애했다고 하지만, 실은 당시 우네메는 신처(神妻)인 동시에 천황의 위안(慰安)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천황의 황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정을 통하거나 다른 이성을 사모하는 일은 일체 허락되지 않았다. 처녀가 천황만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문구 역시 천황을 미화하기 위한 말이겠다. 그러나 우네메 입장에 처하게 된 처녀들은 원래 지방 호족의 딸로서 훌륭한 아가씨들이었다. 그녀들은 신을 모시는 무녀(巫女)라는 명목으로 궁중에 모이게 되었고 궁중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궁중에 와보니 인질(人質)로서의 자신들의 운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처녀가 여기 문구대로 천황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길 없으나 그녀가 천황에 의해 처녀를 상실한 것과 그후 그녀가 비탄(悲嘆) 끝에 자살한 것을 알 수 있다. 천황은 처음부터 처녀를 하루만 보내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나 처녀에 있어서 그 일은 그녀의 생명까지 좌우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유린(蹂躪)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결백(潔白)을 자기 자신에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위의 <산상왕과 처녀>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설화는 처녀가 사회적 제도나 권력에 의해 무조건 희생되는 이야기이다. 처녀가 사회적 지배자에 의해 처녀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때 처녀는 사회적으로 거부하기가 불가능한 입장에 처 있었다. 둘째, 처녀가 가진 한번의 인연은 그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우네메는 한번의 인연을 가진 후 자살했고 <산상왕과 처녀>의 경우에는 왕비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녀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인연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 처녀에 있어서 이성과의 인연은 생명조차 좌우하는 큰 일이었지만, 왕이나 천황에 있어서 이는 하잘것없는 일로서 한번 처녀를 알면(자기 것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大和物語』 제 155 화의 이야기이다.

옛날에 관청의 차관이 아주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천황에게 드리려고 생각하여 귀중하게 키우고 있었지만, 차관을 모시고 있던 어떤 하급 관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그 딸을 보았다. 그녀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자마자 (하급 관리는) 자기 정신을 잃었고 그녀를 사모하게 되어 주야 고민 하고 (드디어)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 하기에 아가씨가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나.”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남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녀를 기습하여 딸을 타게 하고 미치(陸奥)지방을 향해 주야 쉬지 않고 도망했다. (중략) 어느 날 이 남자가 집을 나갔다. 여자는 혼자 먹을 것도 없이 산 속에 있었기에 아주 불안하고 있는 나날에 아이를 배었다. 남자가 먹을 것을 찾아 집을 나가고 삼, 사일이나 되어서 그녀는 애타게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 산 우물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추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중략)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사카(安積山)의 모습까지 비치고 보이는 산의 우물이 얇은 것처럼,

얇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을 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노래를 읽고 나무에 새기고 집에 와서 죽었다. 남자는 이거저것 먹을 것을 구해서 집에 왔지만, 여자가 얼드린 채 죽고 있었기에 (중략) 이 노래에 대해 외곬으로 생각하여 고민한 나머지 여자의 사체 옆에 엎드려서 죽어버렸다.

(『大和物語集』)

이 이야기에서 처녀가 잘 모르는 상대에 의해 불의의 처녀상실을 당하는 것은 상기의 한국 이야기들과 같지만, 이 이야기에서 처녀는 임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자신의 변모한 용모를 보고 자살한다. 처녀를 빼앗은 총각도 처녀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어서 처녀가 죽고 나서 자신도 따라 죽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처녀의 약탈 이야기인 동시에 총각의 순애 이야기이기도 하며 일관되고 있는 것은 처녀의 무구(無垢)라고 할 수 있다. 노래의 내용은 일당 사랑의 노래이며 결국 처녀도 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처녀의 청순(淸純)함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이야기가 일종의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노래의 내용은 이야기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녀가 우물 속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주 부끄럽게 느낀 것은 추하게 된 자신의 얼굴이나 몸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를 자살까지 끌어간 것은 산 속에서 혼자서 버린 받았거나 자신의 용모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자신을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가 자신을 ‘아주 부끄럽게’ 느꼈다는 것은 그녀가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을 추악(醜惡)하고 더러운 존재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총각의 처녀강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순애와 비극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여러 모티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지만, 일관해서 처녀의 무구(無垢)를 볼 수 있으며 처녀가 뜻밖의 처녀상실을 당했을 때의 경위를 잘 묘사하고 있다하겠다.

## ② 結婚拒否 모티프

다음은 『三國遺事』 <태종춘추공(太宗春秋)> 조에 있는 아해(阿海)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유신은)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밝아서 옷끈을 떨어뜨리고, 청하기를 “내 집에 들어가서 달자.” 하였다. 유신이 아해(阿海)에게 께매 드리라 하니, 아해가 말하기를 “어찌 사소한 일로써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 하리요.” 하고 사양하였다. (『三國遺事』)

이 이야기는 앞에 <김유신의 누이> 이야기 속에 있는 언니 아해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지만, ‘어찌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 하리요.’라는 말은 귀공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냄 과 동시에 아해가 유신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상관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신의 의도는 공과 누이의 결합이었다. 그러므로 아해는 유신의 이러한 권유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를 신라의 이객관대(異客款待) 풍습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 유신의 야심(野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아해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결합하는 일을 거부한 것이다.

다음은 일본 『万葉集』에 나오는 한 처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시야(葦屋)의 우나이(砺原)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처녀는 여덟 살 어린시절부터 아가씨의 모습으로 머리를 결발할 나이가 될 때까지 늘어서 있는 (주변의) 이웃집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싶다고 안타까워하고 빙 둘러싸 울타리를 이루고 구혼했는데, 치누(千沼)란 곳에 살고 있던 사나이와 우나이(砺原)에 살고 있던 사나이가 초라한 (그녀의) 집을 태우고 (기세를 올려)벼르고 안으로 들어와 서로 다투어 구혼했다. 이 두 사람은 몇 번이나 태워버린 칼의 손잡이를 잡고 활과 화살을 넣은 전통(箭筒)을 어깨에 메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려는 마음으로 맞서고 싸웠다. 이때 이 처녀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하찮은 나 때문에 사나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비록 살더라도 (어떻게 그 중의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저 세상에서 기다리겠다며 남몰래 한탄하며 슬피하고 죽었다. 치누 사나이는 (처녀가 죽은) 그날 밤 (그 처녀를) 꿈꾸며 처녀를 따라 죽었기 때문에 늦은 우나이의 사나이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외치며 땅을 치고 이를 갈며 분하고 그 녀석에게 지면 안 된다고 어깨에 멘 칼을 잡고 (자살해서) 뒤를 따라갔다.

(『万葉集』 1809)

이 이야기는 남성 앞에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는 청백한 처녀가 두 남성의 구혼을 받고 고민한 끝에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 처녀가 한사람만이라도 좋아하고 있었다면 그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둘을 다 좋아하고 있었다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처녀는 총각들이 자신을 위해 서로 싸워 생명까지 해치는 일을 위구(危懼)하거나, 비록 한사람을 택해도 남는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자기가 죽자고 해서 자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남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먼저 희생시켰다는 뜻으로 훌륭한 여성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남자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항(抵抗)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녀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남성 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 이 처녀는 두 명의 남자의 억지로 하는 구혼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데고나(手兒名)> 라는 한 처녀에 대한 전설이다.

아즈마(東國)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서 지금까지 늘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가쓰 시카(勝鹿)의 마마(眞間)에 살고 있던 데고나(手兒名)라는 아가씨는 삼(麻)으로 만든 (초라한) 옷에 바란 옷깃을 붙이고 삼(麻)으로 치마를 짜고 입고 있었다. 머리 도 빗지 않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걸지만 좋은 비단옷을 입고 소중히 키운 (부자 집의) 아가씨들도 이 처녀에게는 못 미쳤다. 보름달과 같은 둥근 얼굴로 꽃처럼 미소를 띄우며 서 있으면 마치 여름 벌레가 불안에



뛰어드는 것처럼, 또 많은 사나이가 항구에 들어가려고 배를 젓은 것처럼  
남자들이 모여서 (그 아가씨에게) 구혼했다.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외곬으로 생각하며 고민한 나머지 자살했는가? 왜 이 처녀는 과도가 해안을  
때리는 (이러한) 안정하지 않은 곳을 묘지로 택해서 그 몸을 누이고 있는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어제 있었던 일과 같이(불쌍하게) 느껴진다.  
(『万葉集』 1807)

이 이야기는 전설의 처녀 데고나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로 짧은 인생을 마쳤다.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이며 이것이 그녀의 존재를 한층 더 신비하게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보통 미인의 아가씨들은  
집안에서 귀중하게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데고나의 경우는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지 물을 푸기 위해 자주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 같다. 아가씨의 나이가  
되어는데도 머리도 빗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남성들에게  
전혀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녀의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의 나타남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마치 소녀와 같이 행동하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듯 하다. 그러므로  
많은 남성한테 받은 구혼은 이 처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위의 이야기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大和物語』 제 142 화의 이야기이다.

돌아가신 궁녀이고 가장 연장자였던 분은 (중략) 그녀가 어렸을 때 모친을 잃었  
다. (중략) 그녀는 대단히 품이 있고 아름다워서 많은 남자에게 구혼을 받았지만  
한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여자라는 것은 끝가지 이대로 결혼도 안하고 일생  
을 마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답장을 해라.”고 부친도 계모도 권하였기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남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저는 당신을 사모하고 있으나 사모해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가슴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은 정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  
시겠어요?

라고 만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친 등이“결혼시키  
자.”고 했지만 (그녀는)“일생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보내겠다.”고 늘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말대로 결혼도 안하고 스무 아홉의  
나이에 죽었다. (『大和物語』)

이 이야기는 인품과 용모가 뛰어난 궁중 여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혼을 거부하고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녀가 왜 결혼을 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일생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보내겠다.’고 평소에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구혼해 온 남자들 중에 마음이 들은 사람이 없어서 때를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가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미모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거부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미묘한 관심사이지만, 이는 역시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 있고 싶어하는 처녀 특유의 성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竹取物語』 이야기이다.

옛날 대나무를 채집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 (중략) 대나무 숲 가운데 밀동이 빛나는 한 그루가 있었다. (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잘 봤더니 통 안이 빛나고 있었다. 통 안을 잘 보았더니 세 치 정도의 사람이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중략) 내 아이가 될 사람이 틀림이 없다.”고 해서 (노인은) 손바닥 속에 놓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노파에게 맡기고 키웠다. 그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었다. (중략) 3 개월 정도가 되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엇고 성인의 옷도 입게 했다. 그리고 장막 속에 넣고 아주 소중하게 키웠다. (중략) 세상 남자들은 신분이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너도나도 어떻게든 빛나는 공주를 얻고자 해서 (중략) 집 주위를 떠나지 않는 귀공자(貴公子)들이 거기서 밤을 새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중략)“할아버지(나)는 이미 칠십 세를 넘었다. 언제 저 세상에 갈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법이다. (중략) (당신만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을 수 있나.”빛나는 공주가 말하기를“어찌 제가 결혼 따위를 하겠습니까.”고 했더니, (중략) 이 할아버지(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혼자 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략)”라고 했더니 공주가 말하기를“잘 생겼던 것도 아닌데 설사 귀인(貴人)이라고 해도 깊은 애 정도 없이 결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중략) (천황이 사자를 보냈을 때)“설사 천황이 부르신다고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라며 조금도 (천황의 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중략) 7 월 15 일의 달밤에 공주는 뒷마루에 앉아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중략) 8 월 15 일이 가까운 달밤에 공주는 뒷마루에 앉아서 심하게 울었다. (중략)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번 15 일에 저를 본국에서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별해야 했기 때문에 슬퍼서 (중략)”라며 심하게 울었다. (중략) 하늘 사람이 하늘의 옷을 공주에게 입게 하면 (중략) 나는 수레를 타고 백 명 정도의 종자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竹取物語』)

이 이야기는 10 세기경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공적인 이야기(Story)로 알려져 있다. 작자는 불명이고 고대설화를 사용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구비전설과 유사한 이야기로서 설화에서 미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공주가 대나무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모든 구혼을 물리친다. 마침내 천황까지 구혼했지만, 응하지 않고 결국 처녀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昇天)하는 결말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남자의 구혼과 그에 대한 거부로 일관되어 있다. 공주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신성(神聖)하지만, 집안의 장막(帳幕) 속에 소중히 키워졌다는 점도 청결(淸潔)성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녀는 끝까지 한 명의 남자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남자를 일체 거부하여 남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몸을 지키려는 성질은 실은 처녀 특유의 처녀성(處女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처녀가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승천했기 때문에 영원한 처녀를 묘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온 천녀(天女)가 지상의 남자와 결혼하고 지상에 아이를 남겨준 채 하늘로 돌아가는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와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공주가 남자를 일체 거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상 한국과 일본의 고대설화에 자주 나타난 처녀의 순결과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고대설화에 많은 것은 <처녀상실>모티프이고 일본 고대설화에서는 <결혼거부>모티프이다. 전자는 처녀가 남자에 따라가 처녀를 상실하여 그 결과 박해와 시련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며 후자는 처녀가 많은 남성으로부터 구혼을 받았으나 끝까지 결혼을 거부하고 때로는 자살까지 하고 세상을 떠난 이야기들이다. 전자는 처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후자는 부모의 의지와 반대로 처녀가 결혼을 안 해서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 양국의 설화의 모티프는 정반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치하는 것은 양국 설화는 순결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문제가 된 한국 설화에 대해 일본의 그것은 처녀가 계속 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고대설화에 <처녀상실>모티프가 많고 일본 고대설화에 <결혼거부>모티프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한국 이야기들은 여성이 무조건 남성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녀들은 갑자기 받은 남성의 유인 앞에 거절할 줄 모른 것처럼 그에 응하고 따라가고 있다. 마치 남성에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운명인 것처럼, 또한 따라가야만 하는 것과 같이 처녀들이 남성에 순종(順從)하고 있다. 그것에 비해 일본의 설화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처녀들은 남성의 구혼을 단호히 거절한다. 마치 거절하는 것이 처녀의 임무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

『竹取物語』에서는 천황까지 처녀의 거부를 받게 된다. 또 일본 고대설화에도 <처녀상실>모티프가 있으나 하나는 자신이 유린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처녀는 자살을 택한다. 또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최후에 여자는 자살했고 남자도 그녀에 따라 죽었기에 처녀가 남성에게 유린을 당해서 이를 인내하거나 자신을 유린(蹂躪)한 남성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한국 이야기에는 여자의 남자에 대한 복종(服從)과 종속(從屬)이 보이는데 비해 일본 이야기에는 남녀간에 주종관계가 없고 처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풍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조적인 양 모티프는 이러한 부계(父系)적인 사회와 모계(母系)적인 사회의 처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約婚과 禁慾

## ① 約婚 모티프

다음은 『三國史記』에 있는 설씨녀의 이야기이다.

진평왕(眞平王) 때 설씨녀의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으나 이때 정곡(正谷)을 방위하는 당번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략) 이 때 사랑부(沙梁部)에 사는 소년 가실(嘉實)은 (중략) 일찍부터 설씨녀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였으나, 그러나 감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설씨녀의 노부(老父)가 종군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설씨녀를 찾아가서 청하기를“나는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중략) 아버님의 병역을 대신하려 합니다”하니, 설씨녀는 매우 기뻐하여 (중략) 그 아버지는 가실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중략) 내 어린 딸을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는가?”하니 (중략) 가실은 물러나와 혼기(婚期)를 청하니, 설씨녀는 말하기를“혼인이란 인륜대사(人倫大事)이므로 창졸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미 마음을 허락하였으므로 죽은 한이 있더라도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그대는 방어하는 곳으로 나갔다 가 교대하고 돌아온 날을 가려 가지고 성례하더라도 늦지 않겠습니다”하고, 곧 거울을 꺼내어 반을 갈라서 각각 한 조각씩을 나눠 가지며 말하기를“이것을 신 표로 하는 것이오니 뒷날에는 마땅히 이를 합치기로 합시다”하였다. 가실에겐 한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중략) 청컨대 이 말을 맡아서 기르도록 하여 주시오” 하고 작별한 다음 곧 목적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연고가 있어 사람을 뽑아 보내어 교대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가실은 六년이나 머물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설씨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 가실은 三년을 기약하였는데, 이미 그 날짜가 넘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야 되겠다 고 하니, 설씨녀는 말하기를“먼저 부친을 편안히 하기 위하여 억지로 가실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가실은 이를 믿기 때문에 오래 동안 종군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그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인정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부친의 명령을 좇지 못하겠사오니, 청컨대 두 번 다시 말씀하지 않도록 하소서”하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늙어 九十세에 이르고, 또 그 딸의 나이가 차므로 배우자가 없을까 염려하여 강제 로라도 그를 시집보내려 하여 딸 몰래 마을사람과 약혼을 하여 잔치날을 정하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려 하였다. 설씨녀는 굳게 이를 거절하여 몰래 도망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외양간에 이르러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때 마침 가실이 돌아왔으나, 형상은 해골처럼 마르고 옷은 남루하여 집안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딴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가실은 곧 앞으로 나가서 몸에 지녔던 깨어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녀는 이를 받아들고

기쁨에 넘쳐 소리를 내어 우니, 그 부친과 집안 사람들도 기뻐하며, 드디어는 다른 날을 가려 서로 만나 결혼하고 백년 해로하였다. (『三國史記』)

이 이야기는 여자가 한 번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택하면 비록 ‘죽은 한이 있더라도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처녀의 지조(志操)를 이야기한 것이다.

설씨녀의 ‘부친을 편안히 하기 위하여 억지로 가실과 약혼을 하였습니다.’라는 호소에서 알 수 있듯이 실은 설씨녀는 약혼할 때 가실에게 연애감정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또한 결혼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가실과 약혼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실이 아버지의 병역을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남편을 택했다면 어떤 시련이 오도 변함이 없는 마음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설씨녀의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고 또 최후로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 집까지 나가려고 했다. 이는 효(孝)보다 열(烈)이 강하다는 설씨녀의 신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인 한국의 유교이념이나 도덕감각과는 약간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고 주목할 만하다. 결국 설씨녀는 아버지를 위해 약혼했으나 약혼하고 나서는 자신의 몸은 남편이 될 약혼자의 것이며 설사 아버지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그녀의 지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은 『今昔物語集』 卷 22 第 7 話의 이야기이다.

옛날에 (중략) (아드님의) 나이가 열 다섯, 여섯 살 정도 되셨을 때 구월경 매사냥을 하러 가셨다. (중략) 하늘이 갑자기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중략) 도령님은 서쪽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말을 달리게 하셨다. (중략) 남자가 나와서 “누구십니까?”라고 한다. (중략) “누추한 곳입니다만, 그대로 여기서 계시는 것도 어떤가합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집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중략) 그대로 잠시 계셨더니, 미닫이를 열고 나이가 열 셋, 넷 정도의 소녀가 자색 옷을 입고 (중략) 굽 달린 그릇에 술과 음식을 놓아 가져 왔다. (중략) (도령님은) “옆에 오라”고 하시고 가까이 끌어안고 주무셨다. (중략) 옆에서 보는 모습은 멀

리서 보는 것 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귀여웠다. 훌쩍 반해버린 도령님은 아직 어린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약속하시면서 구 월(九月)의 긴 밤을 한숨도 잠들지 않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보냈다. (중략) 떠나려고 할 때, 지니셨던 칼을 소녀에게 주고 “이것을 기념물로 가지고 있어라. 부친이 생각없이 누군가와 결혼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남의 아내가 되면 안돼요.”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다. (중략) 도령님은 그때의 소녀를 사모하면서도 하인을 보낼 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 그리움이 자꾸 더해지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느덧 4, 5년이 지났다. (중략) 그때 소녀를 생각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이에 6년이 지났다. 바로 그때 옛날 하인이 되돌아왔다고 듣고 (중략) 그 장소에

저녁에 도착하셨다. (중략) 전의 방에 가 봤더니 그 여자는 간막 옆에 몸을 숨기는 듯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전보다 더 여성답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아름다워졌다. (중략) 옆에 5, 6 살 정도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는 듯하다. (중략)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때 오신 후에 딸은 남자 옆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오시고 나서 임신하여 낳은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었던 도령님은 아주 감동하여 머리맡을 봤더니 그때 기념으로 준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今昔物語集』)

이 이야기의 감동적인 부분은 소년 소녀가 6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서로 상대를 사모하면서 보냈고 다른 이성과는 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자가 다시 여자를 찾아 왔을 때 6년 전에 기념으로 준 칼이 ‘소녀의 머리맡’에 그때와 같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여성이 대여섯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남자와 곧 닮았다는 점이다. 소녀는 소년이 유물로 남긴 칼을 머리맡에 두고 그때의 일의 증거로서의 아이를 데리고 소년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녀는 신분이 높은 남자를 통해 낳은 아이를 데리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를 믿고 오로지 기다렸다. 이것은 세상을 모르는 소녀의 순진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역시 둘이 맺은 약속에 대한 지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도 약혼자간의 순애(純愛)와 지조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설씨녀 이야기와 주제가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약혼을 모티프로 하는 양국 이야기는 처녀가 약혼자와의 결혼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남자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이야기이다. 결혼하자는 약속 앞에 세월이 흘러가고 세상은 변화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남자를 오로지 기다렸다. 이렇게 오래 세월을 일편단심(一片丹心)의 마음으로 지내고 나서 마침내 결혼이 이루어진다. 양국에서 단지 한 편씩만이 남아 있는 이들 이야기는 처녀의 결백(潔白)함과 순수(純粹)함을 이야기하는데 충분하다.

## ② 禁慾 모티프

다음은 『三國遺事』에 있는 <광덕(廣德)과 엄장(嚴壯)>의 이야기이다.

문무왕(文武王)대에 사문(沙門) 광덕과 엄장이란 두 사람이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기를, 먼저 안양(安養)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름지기 [서로] 알리자고 하였다. (중략) 엄장이 광덕의 거소를 방문하였더니 과연 광덕이 죽었다. 이에 그 처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호리(蒿里)를 만들고 나서 그 처에게 이르기를 “남편이 죽었으니 같이 사는 게 어떠하냐”하니, 그 처가 좋다 하여 드디어 유숙(留宿)하였다. 밤에 잘 때 남녀의 정을 통하려하니 그가 부끄러이 여기며 말하기를 (중략) “부자(夫子)가 나와

십여 년이나 동거하였으되 아직 하룻 저녁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더러운 짓을 하였으랴.”(중략) 엄장이 그제야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자책하며 한 마음으로 관(觀)을 닦아 또한 극락으로 갔다. (『三國遺事』 卷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신앙심 때문에 두 남자가 극락(極樂)으로 갔다는 것이지만, 여성이 겪었던 시련은 순결의 시련이었다. 첫째, 그녀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십 여 년이라는 세월을 한번도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밤마다 염불을 부르는데 전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남편의 사후에 남편 친구가 그녀를 돌봐준다고 해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밤에 그가 함께 자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남편 친구는 회심하고 한 마음으로 길을 닦아 극락으로 갈 수 있었다. 결국 여성의 순결 때문에 두 남자는 극락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 여성이 신앙심에 의해 지킨 것은 처녀의 순결이었다.

다음은 『今昔物語集』 15 권 제 48 화의 이야기이다.

옛날 옛날에, 오우미의 수령인 히코자네(近江守彦眞)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 도모노우지(伴氏)는 어렸을 때부터 도심(道心)이 있어 미타불을 믿고 있었다. 이 여인은 히코자네와 결혼하여 서로 깊은 애정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었고 그의 몸에 접촉한 일도 없었으며 항상 몸을 깨끗이 지키고 염불을 외고 있었다. 어느 날, 여인은 태장계(胎藏界)의 만타라(曼陀羅)

앞에 앉아서 남편 히코자네를 불러 “저는 오래 동안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고, 몸에 접촉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결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과 같은 곳에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다른 집을 하나 주십시오. 따로따로 살고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히코자네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다.

(『今昔物語集』 卷十五)

이 이야기도 결혼하면서도 처녀의 몸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남편의 몸에 접촉해본 적이 없는 부인이 드디어 남편과 따로따로 살고 광을 닦자고 남편에게 의논하는 이야기부분이지만, 역시 수행생활을 하는데 순결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고 몸에 접촉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결코 죄(罪)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따로따로 살고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결국 남녀결합을 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녀결합을 죄로 보는 시각은 『今昔物語集』의 다른 이야기에도 때때로 보이며 권 제 17 21 화에는 ‘너는 늘 정사(情事)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죄(罪)의 뿌리를 심고 왔다.’ 이거나, 권 제 17 28 화의 ‘너의 몸에는 두 가지 죄(罪)가 있다. (중략) 그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는 남자와 음행(淫行)한 죄이다.’는 말, 그리고 권 제 17 의 29 화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와 음행(淫行)한 죄가 없기 때문이다.’ 등 분명히 명기(明記)되어 있다. 이렇게

고대일본의 '불교에서는 애욕(愛慾)은 불도의 길을 이탈시켜 사람의 극락정토를 막는 최대의 번뇌(煩惱)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련의 관문(關門)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욕을 모티프로 하는 양국의 설화는 같이 정토교(淨土教)를 배경으로 하여 처녀의 순결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상 양국에 공통된 처녀의 지조에 관한 설화를 살펴보았다. 약혼 모티프에서는 같이 한번 동의한 결혼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는 처녀의 순진(純眞)하고 경고한 신념을 볼 수 있으며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오로지 그를 기다리려는 처녀의 지조(志操)가 감돌고 있다. 금욕 모티프에서는 부인의 순결함이 각각 남편을 훌륭한 신앙자로 만들고 있고 극락정토(極樂淨土)까지 이루게 한다. 이는 처녀의 순결함과 그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崇高)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양국에 각각 한편씩 남아 있는 이들 처녀의 지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훌륭한 처녀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 4. 處女와 淸淨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처녀를 깨끗함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이성과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는 마치 순백(純白)과 같이 더러움을 모르는 무구(無垢)의 존재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사실, 고대일본에서도 성인식(成人式)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처녀를 먼저 신(神)에게 바치는 의례가 존재했다. 신성한 존재는 직접 인간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신에게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본래 처녀를 신의 아내로 보고 왔고 '사람과의 결혼에 있어서는 신의 허락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금기(禁忌)>가 있었다.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冒瀆), 즉 죄였던 것이다.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 허락을 필요했다.' 다음은 『만요슈(万葉集)』에 있는 처녀의 남성거부에 대한 노래이다.

足柄の 箱根の 嶺ろの にこ草の 花つ妻なれや 紐解かず寝む

아시가리(足柄) 지방의 하코네(箱根)의 산봉우리에 피어 있는 어린 풀과 같이 아름답지만 안고 잘 수 없는 신부입니까? (당신은) 옷의 끈도 풀지 않고(동금을 허락하지 않고) 혼자 잔다니 .... (『万葉集』 3370)

이 노래는 고대일본에 있어서도 결혼 전에는 금기(物忌)의 풍습이 있어서 설사 약혼자라고 해도 신부와 동금하면 안 되는 기간이 존재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신부란 결혼 초야에 관계를 피해야 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 본래 재녀(齋女)나 무녀(巫女)가 모두 처녀였던 것은 이들 여성이 신의 아내로서 신과 결혼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는 처녀의 청정(淸淨)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예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처녀를 욕보이는



것은 <더럽히는> 행위이며 <부정(不淨)>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万葉集』에 있는 재녀와 관련된 노래이다.

木綿かけて 祭る三諸の 神さびて 齋ふにはあらず 人目多みこそ

흰 종이를 늘어뜨려서 제사하는 영지와 같이 엄숙히 금기생활을 하고 있 어서 당신을 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입니다.

(『万葉集』 1377)

이 노래 역시 처녀가 남자의 방문을 거부하고 몸을 지키려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그녀는 그 이유로서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몸을 깨끗이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걱정해서라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사하는 여성은 재녀이며 처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이 자신을 재녀로 비유한 이유는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처녀가 초 경험을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끝까지 몸을 지키려는 처녀의 본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不淨)이란 더러움(穢)을 의미하며 ‘엔기시키(延喜式)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의 죽음과 출산, 육식(肉食), 월경(月經), 실화(失火), 매장(埋葬) 등을 말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의 설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 『日本靈異記』나 『今昔物語集』에는 부정에 대한 다른 의미를 나타낸 문절이 있다. 다음은 『日本靈異記』 중권 제 13 의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주미(和泉) 지방의 이주미 마을의 지누(血滯)의 산사에 흙으로 만든 기치쵸(吉祥)천녀(天女)의 형상이 있었다. (중략) 거사가 그 산사에 와서 살았다. 거사는

천녀의 형상을 결눈질로 보고 애욕을 느끼게 되고 (중략) 어느 밤에 천녀의 현상과 교접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천녀의 현상을 잘 보았더니 옷의 허리 부분에 부정(不淨)의 흔적이 배고 남아 있고 더럽혀 있었다.

(『日本靈異記』 中卷第 13)

여기서는 거사가 꿈속에서 천녀(天女)와 행한 음행(淫行)을 부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정에 의해 더러워진 것은 천녀의 현상 허리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천녀 자체가 더러워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 <더럽히다>, <더러워지다>는 말은 현재 일본에서는 주로 여성의 정조(貞操)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용하지만 9세기초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여신(女神)과 같은 존재가 음행에 의해 더럽혀 그 신성(神聖)함을 잃었다는 뜻으로 쓰여져 있다. 이는 같은 『日本靈異記』 하권 제 18 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日本靈異記』 하권 제 18 의 이야기의 일 절이다.

경사(經師)와 여성들은 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 경사에게 음란한 사심(邪心)이 일어나서 (중략) (아가씨와 그와) 두 사람은 안고 있는 채 죽었다. 단 여자의 입에는 거품이 나오는 채 죽어 있었다. (중략) 음란(淫亂)한 마음으로 부정(不淨)행위를 하면 안 된다. (『日本靈異記』 下卷 第 18)

여기서도 음행(淫行)을 부정(不淨)이라고 부르고 있고 처녀가 경사에 의해 더럽힘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정은 더럽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천녀나 처녀를 욕보이는 것으로 처녀의 청결(淸潔)함을 빼앗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려 버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말하면 처녀의 청결함과 신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음은 『만요슈(万葉集)』에 있는 한 처녀의 노래이다.

河上のゆつ岩群に 草生さず 常にもがな 常娘女にて

(강변의 바위에 풀이 나지 않고 늘 깨끗한 것처럼 나도 계속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처녀처럼...) (『万葉集』 22)

이 노래는 냇가의 바위가 언제나 깨끗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바위처럼 영원히 깨끗한 처녀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처녀의 노래이다. 처녀가 바위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노래이다.

다음은 『日本靈異記』 제 31의 이야기이다.

한 여사가 있었다. 그의 성(姓)은 아가타(縣)이다. 나이는 스무 살 정도가 되는 데, 아직 처녀로서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했다. (중략) 둘 두 개를 낳았다. (중략)

무녀(巫女)에게 신이 지펴서 말하기를 “그 낳은 두 개의 돌은 내 아이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처녀의 집 앞에 금줄(禁繩)을 치고 신으로 모셨다. (『日本靈異記』 第 31)

이 이야기는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혼자 임신하고 알을 낳은 데 이 알에 대해 신이 ‘내 아이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고대 민속에 따르면 신이 처녀를 찾아와 처녀와 신혼(神婚)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역시 처녀가 신과 신혼하여 알을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은 존재와 결혼하고 임신하는 것을 신기하게 느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처녀임신(處女妊娠)의 이야기는 처녀와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의 아내로서의 처녀의 신성(神聖)함을 나타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처녀성과 관련되는 일본의 부정(不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부정이란 더러움(穢)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죽음, 출상, 피(血) 등 민속신앙에 의한 부정관념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8 세기에 기록된 『日本靈異記』에는 처녀와의 음행(淫行)을 부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처녀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처녀를 더럽혔다고 말하는 현대일본어의 뜻과 같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원래 처녀를 청정(淸淨)한 존재로 보고 온 사실을 의미한다. 『万葉集』에도 처녀를 신(神)의 처(妻)로 보고 인간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는 신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나, 제사를 하는 무녀가 신처(神妻)로서 처녀를 지켜야 했던 내용이 쓰여져 있다. 이는 일본인의 정조관념(貞操觀念)이 신관(神觀)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을 말하고 있지만, 처녀가 지켜야 되는 것은 청정, 즉 순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처녀는 청정, 즉 순결을 의미하며 그것을 빼앗은 행위는 부정, 즉 처녀를 더럽히는 행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녀와 청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대한국에 남아 있는 문헌설화가 없어서 여기서 작품을 통해 비교할 수가 없으나 고대 한국의 무속(巫俗)이 일본의 그것과 근본적으로는 유사하다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무녀 역시 신의 아내로서 신을 모시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한국어에서도 여자의 정조를 빼앗은 것을 ‘여자를 더럽힌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추측이 신빙성이 높다. 다음은 덕적산(德積山)에 있는 한 사당(祠堂)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五州衍文)』에도 ‘송도성(松都城) 동남쪽 10 여

리밖에 덕적산(德積山)이 있는데, 산상(山上)에 최영(崔榮)의 사당이 있고 그 지방 토착민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사당 곁에 침실을 만들어 반드시 민간의 처녀로 하여금 사당을 모시게 했으며, 처녀가 늙으면 다시 나이 어린 처녀를 택하여 사당을 모시게 했다. 이렇게 1 백여 년을 계승해 왔다. 밤이 되면 영혼이 내려와서 교접(交接)한다고 시녀(侍女)가 말했다 한다.

이 이야기는 무녀가 처녀의 몸으로 신을 모시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사당을 모시는 여성이 처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무녀가 신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상기의 일본고대 정조관념과 같이 신을 위해 정조를 지키는 것이 무녀의 임무이었고 처녀를 지키는 이유임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양국에 있어서 고대서부터 처녀의 청결(淸潔)관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청결을 빼앗은 것은 처녀를 더럽히는 것이며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結論

이상 한국과 일본의 고대설화에서 처녀의 순결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추출함으로써 모티프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모티프가 처녀상실 모티프이며 일본에서는 결혼거부 모티프이다. 처녀의 처녀상실을 처녀의 탓으로 여기고 처녀를 처벌하려는 한국 특유의 이야기는 처녀의 남성에 대한 순종(順從)성이 잘 나타나 있으나 처녀를 빼앗은 남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언급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여성차별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당시 사회의 남존여비사상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처녀가 남성들의 구혼을 모두 거부하고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본고대 이야기는 처녀의 순결성에 대한 집요(執拗)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그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사회풍습의 나타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양국의 모티프는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부계적 고대한국사회와 비교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 있는 고대일본사회의 사회풍속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에 단 한편씩 남아 있는 유사한 이야기의 모티프가 처녀의 약혼 모티프와 신앙생활을 위한 금욕 모티프이다. 이러한 처녀의 자조에 대한 이야기는 양국에서 공통된 것이며 처녀의 가련(可憐)하면서도 단호하고 훌륭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고대설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순종성, 일본의 특징인 처녀임에 대한 집요성, 그리고 양국에 공통된 약혼이나 신앙을 위한 순결에 대한 지조성을 보고 왔으나 이들은 모두 처녀의 순결을 귀중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순결을 지키는 처녀가 깨끗하고 청결한 순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나 이는 일본 고대설화와 고대의 노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본 고대설화에서는 남녀결합을 죄로 보고 있는 문절이 가끔 보이고 특히 처녀와의 음행을 부정이라고 하며 처녀를 더럽혔다고 해서 비난하고 있다. 일본 고대의 노래를 보면 처녀가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성인식(成人式)을 하여 신에게 처녀를 바쳐야 되고 또 결혼식을 통해 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 처녀의 순결성은 신과의 정조관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유사한 무속신앙을 가진 고대 한국사회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한일 고대설화에 나타난 처녀성은 순결성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순결성이란 신에 대한 정조를 기원으로 하는 청정(淸淨)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녀의 청정을 더럽히는 것은 부정(不淨)이고 죄(罪)이었던 것이다.

- 김부식/김종권(역) 『삼국사기(상)(하)』 大洋書籍 1972.
- 김현양 외(역) 『譯註 殊異傳 逸文』 박이정 1996.
- 일연/이동환 『삼국유사』 장락 1994.
- 秋本吉郎(校,注) 『風土記』 岩波書店 1958.
- 井上光貞 外(校,注) 『日本書紀 上,下』 岩波書店 1967.
- 倉野憲司 外(校,注) 『古事記 祝詞』 岩波書店 1958.
- 國東文磨 外(校,注) 『今昔物語集 二』 小學館 1972.
- - 三 - 1974.
- - 四 - 1976.
- - 2 - 2000.
- 小島憲之 外(校,注) 『萬葉集①~③』 小學館 1999.
- 小西甚一 外 『古代歌謠集』 岩波書店 1957.
- 佐佐木信綱(編) 『新訓 萬葉集 上,下』 岩波書店 1927.
- 佐竹昭廣 外(校,注/譯) 『萬葉集 二-三』 小學館 1972-73.
- 高橋正治 外(校,注)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小學館 1972.
- 中田祝夫(校,注) 『日本靈異記』 小學館 1995.

#### 參考文獻

- 金興圭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 金宅圭 外(編) 『韓國民俗研究論文選 I~IV』 一潮閣 1982.
- 金烈圭 (編) 『三國遺事와 韓國文學』 學研社 1983.
- 金承璨 (編著) 『鄉歌文學論』 새문社 1986.
-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95.

- 외 『民俗文學과 傳統文化』 박이정 1997.
- 김선풍 외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 金英美 『新羅佛敎思想史研究』 民族社 1994.
- 金靜子(編著) 『韓國結婚風俗史』 民俗苑 1974.
- 金富軾/金鐘權(譯) 『三國史記(上)(下)』 大洋書籍 1972.
- 東國大學校附設 新羅文化研究所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1987.
- 朴魯猷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 서대석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 李能和/金尙憶(譯) 『朝鮮女俗考』 東文選 1990.
- /李在昆(譯) 『朝鮮巫俗考』 - 1991.
- 이혜순 외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一然 外/李丙燾 外(譯) 『韓國의 民俗, 宗敎思想』 三省出版社 197
- 張德順 외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 1995.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69.
- 『삼국시대 설화의 뜻 풀이』 집문당 1990.
- 황패강 『한국문학의 이해』 새문社 1991
- 秋葉隆/沈雨晟(譯) 『朝鮮民俗誌』 東文選 1993.
- 小野寬 外(編) 『上代文學研究事典』 おうふう 1996.
- 門脇禎二 『采女』 中央公論 1971.

多田一臣 『萬葉歌の表現』 明治書院 1990.

土橋寛 (編) 『呪禱と文學』 學生社 1979.

藤井貞和 外(編) 『日本文學史 第1-3卷』 岩波書店 1995-1997.

矢野尊義 「韓日古代婚姻說話의 比較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處容歌에 나타난 貞操觀」 (『東아시아 古代學』 東아시아古代學會 第1輯 2000.)

- 「古代說話에 나타나 愛慾모티프」 (『日本文化學報』 韓國日本文化學會 第10輯 2001.)

- 「日本古代說話와 烈女思想」 (『日本學報』 韓國日本學會 第50輯 2002.)

< Abstract >

## A Study on the Virginity in the Korean and Japanese Ancient Narratives

Yano Takayoshi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of virginity which appears in the Korean and Japanese ancient literature ; narrative, legend, folk tale, and ancient song.

The narratives or folk tales which represent the virginity in ancient times in Japan and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ree types, a violation type, maidenliness type, and faithful type. The most violation types are Korean narratives, which relate the deprivation of maidenhood and punishment as a result. And the most maidenliness types are Japanese narratives and folk tales, which relate the refusal to a marriage of lady and the tragic death in virgin as a result. And the faithful types are common types in Korea and Japan, which relate the strong belief for her finance and absolute ascetic for faith. All these tales suggest the value of pureness for virgins.

Finally, we can find that this idea of pureness of virgin came from the idea of ancient habit of marriage between God and the virgin. Because in ancient times ladies kept virgin for God in Japan and Korea.

